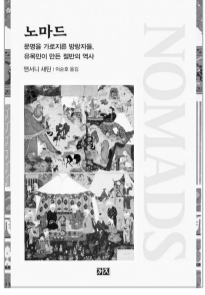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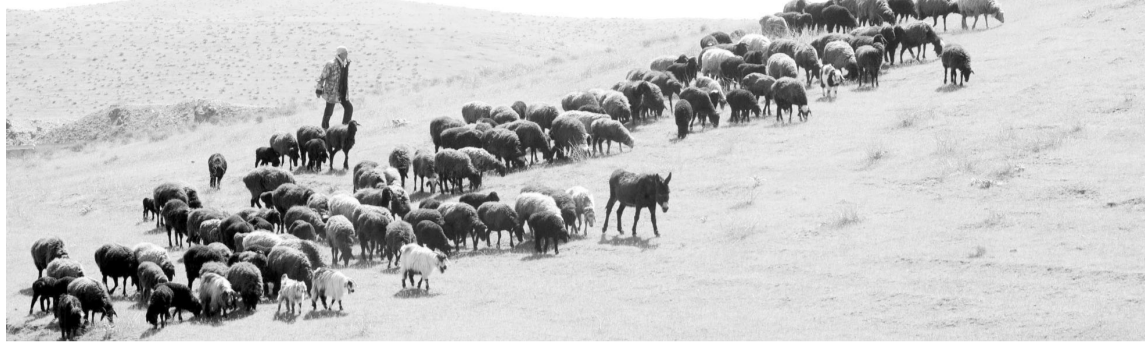
자연에 순응한 유목민, 세계사 어떻게 바꿨나

노마드

앤서니 세틴 지음, 이순호 옮김



시리아 남부다마스쿠스는 세계 최고(最古) 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피의 동굴'이 자리하고 있다. 왜 형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했을까?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아벨에게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받기시키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받기시지 않았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목초지에서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 <광주일보 자료 사진>

저자는 "그 심판은 방랑하는 부족의 신이 땅의 경작자들보다는 유목하는 목축업자들을 더 좋아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수도 있다"라며 수렵·채집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 기원전 9500년 무렵 '신석기 혁명' (진화) 시기에 벌어진 정착민과 유목민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한다.

부터 당신과 나에게로 이어지는 길이다"고 밝힌다.

'노마드' (Nomads) 어원은 초기 인도유럽어 '노모스' (Nomos)에서 유래했다. '고정된 지역 혹은 경계지역', '방목지', '방목지를 찾아다니는 사람' 등 다양한 뜻을 지녔다. 현대들어 '노마드'는 유목민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으로 확장됐다.

히 유목민 '소프트 파워'는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통해 동·서양이 교류하고 통상하는 실크로드를 열었다. 이를 통해 14세기 유럽인들의 생각과 기술에 영향을 미쳐 '르네상스'도 촉발시킬 수 있었다.

자연을 지배하고자 했던 서구는 18세기에 '노마드' 단어를 영어사전에도 등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저자는 미국이 황금이 발견된 서부로 진출하며 자행한 수족 등 인디언 학살을 살펴보면 근대기의 '노마드'에 대해 살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자연에 따르는 삶 또한 '노마드' 정신에서 비롯됐다.

작가 앤서니 세틴은 1부 '균형잡기'와 2부 '제국 세우기', 3부 '회복하기' 등 크게 3부로 나눠 부제와 같이 '문명을 가로지른 방랑자들, 유목민이 만든 절반의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저자는 튀르키예 신석기 시대 거석(巨石) 유적지 '괴베클리 테페' (Göbekli Tepe)를 시작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이븐 할둔 '역사 서설', 한나라 장건의 서역여행 등을 통해 유목민의 역사·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훈족, 흉노족, 스키타이족, 몽골족 그리고 아틸라와 징기스칸, 티무르... 6000여 년 전부터 말을 길들이며 벌어지는 '말의 혁명'과 유목민의 승마능력, 이동·종교의 자유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역사를 바꾸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가 자주 거론된다. 유목민들은 사라진 이들이 아니다. 인류에게 '유목민 유전자' (DRD4-7R)를 남겼고,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이 일군 신화와 역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류 문명의 반쪽을 오롯하게 살려낸다. 저자는 장대한 유목민 1만2000년의 역사를 통해 도시에서 정착해 사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노마드' 정신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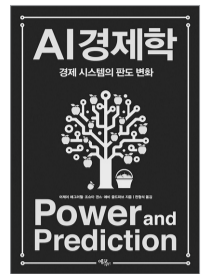
"그들은 동물을 키울 목초지를 따라 곳곳을 방랑하면 지낸다. 동물들은 대부분 말, 소, 양이다. ...머물러 지내며 말을 경작할 성곽 도시는 없지만, 그들 각자는 땅을 가지고 있다."

정착민이 기록한 유목민은 정착민을 침략하고 파괴하고 살생하는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무리일 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과 정착해 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라며 "내가 따르기로 선택한 길은 바로 이것, 카인과 아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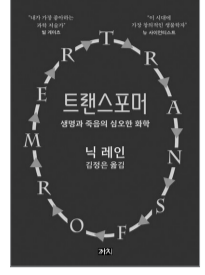
저자는 유목문화에서 '아사비야' (Asabiyya)의 가치를 강조한다. '당파심, 연대의식, 단결심, 부족적 연대'의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고 유목민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특

새로운 책

▲AI 경제학=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책은 드물다. 금융에서 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은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물리적인 요소를 운용하는 주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분리와 낮은 '지배력'을 불러올 수 있다. 교착된 시스템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정착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에코리브르·2만2000원>



▲수족=도시적 연출력과 언어의 세련된 구사능력 속에서 태어난 시집. '수족'이라는 제목은 물과 같은 구슬이라는 의미인데, '동근 사랑의 마음'을 표상하는 시인만의 정서적 형상이다. 시집 말미에는 시평 대신에 시인이 쓴 산문 '병과 함께'가 함께 실렸다. '한 사람의 꽃나무', '관' 등 일상에서 기워 올린 다양한 시편들을 볼 수 있다. '갑자기 내린 비', '물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등 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다양하게 실려 있다. <창비·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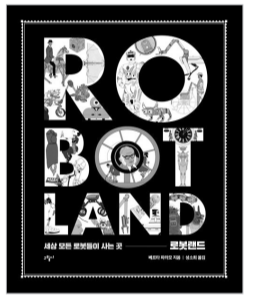


▲트랜스포머=생로병사의 비밀이 되는 '크레브스 회로'에 대한 비밀을 다뤘다. 크레브스 회로란 우리 몸에 들어온 유기물이 세포의 호흡 과정 등 순환을 거쳐 에너지를 생산한 뒤, 물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이 회로는 생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을 응축한 하나의 소우주이며,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유동 축전지'와 같다. 기체들이 다른 유기물질들로 형태를 바꾸고,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려 준다. <까치·2만5000원>

▲버드걸=부모님의 '탐조 여행'에 동참하며 '버드 걸'로 불린 마이아로즈 크레이그의 삶을 다뤘다. 그녀는 이십대 초반부터 일곱 개 대륙의 40개 국가를 여행하면서 5000종이 넘는 새를 마주하고, 자신단체 블랙투네이저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삶 이면에는 어머니의 정신 질환, 어린 여성 활동가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난 등이 숨겨져 있다. <문학동네·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심장이 연주하는 우리 몸=심장에 담긴 과학과 의학, 역사,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른 동물들의 특이한 심장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몸속에서 심장이 어떻게 피를 순환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지 알려준다. 옛사람들이 심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기원한다고 믿었던 점 등을 예로 들며, 문화사회학적으로 다양한 '기호'로 활용되어 온 심장의 역할을 둘러본다. <스물북·1만6000원>

등이 많다. 놀이터 그네를 누가 먼저 탈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크고 작은 갈등 속을 해결하는 열쇠인 '함께함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 <파란자전거·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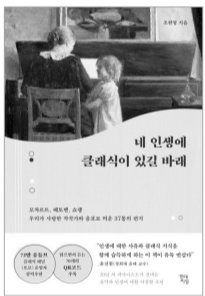
▲함께라면 천하무적=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다. 최신 게임이나 스마트폰, TV 등 가지고 놀거리는 다양하지만 오히려 주변에는 갈

▲로봇랜드=1952년 데스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 16세기 보헤미아 왕국 프라하를 떠도는 '골렘' 전설, 2000년대 드론 벨루타나와 스웨그 봇 등은 모두 '로봇'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대를 초월해 전 세계 소년 소녀들에게 사랑받아 온 로봇의 변천사를 소개한다. 삽화와 글을 통해 로봇의 구조 등을 알려주고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준다. <그림씨·2만8000원>

피아니스트가 전네는 클래식과 인생에 대한 조언

네 인생에 클래식이 있길 바래

조현영 지음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출발하는 '처음'도 있다. 예술 강연자로,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현영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주자의 길을 갈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그는 지금 스스로 개척해 나간 길 위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 '조현영 표 클래식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 강의로, 오디오 클립(조현영의 올 어바웃 클래식)으로 사람들과 조우하며 위로 를 전한다.

년의 시간을 이겨내며 살아 남았다는 사실, 감상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멈춤 여유를 선물하는 침묵이 꼭 필요한 점, 작곡가와 연주자의 인생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가 생각하는 클래식의 힘이다.

'기다렸어, 이런 음악 수업', '오늘의 기분과 매일의 클래식' 등을 출간한 조현영의 새 책 '네 인생에 클래식이 있길 바래'는 제목 그대로, 당신의 삶 속에도 클래식이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써내려간 책이다. 그는 인간 관계, 사랑, 일과 성공, 취향을 가꾸는 일을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며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때는 계속되는 불운에도 "언젠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말러의 교향곡을 들어볼 것을 권하고, '카르멘'과 '나비부인' 초연 당시 비난을 받았던 푸치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순간의 실패를 인생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예술가들 대부분은 세간의 평가와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비발디는 세상 모두가 자기를 좋아할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깨닫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었다. 저자는 "나라는 색깔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나는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디아벨리 변주곡' 등 짧은 주제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변주곡'을 통해서도 인생이야말로 슬픈 일과 기쁜 일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각 글의 끝에 실린 '음표로 띄운 추신'에는 음악가와 작품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담겼다. 또 임윤찬의 반클라이브 쿨루르 실황 중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그랜드 피아노를 산 정상으로 옮겨 연주하기도 했던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가 들려주는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 영화 '파리의 피아니스트'를 통해 알게된 후지코 헤밍이 연주하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심사숙고해 선정한 음악을 QR코드로 들을 수 있다. 특히 책 말미에 60여개의 연주 동영상 을 한번에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QR코드도 실었다. <현대지성·1만8500원> /김미은 기자 mekim@

힘든 순간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클래식 음악이었다. 삶의 지혜를 알려준 것도 클래식이었다. 300~40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